

| 초기을꽃이 주는 계절의 기쁨을 배워오다

일 시 - 2007년 9월 8일 (토)
 장 소 - 경기도 양평 신분리 한그루녹색회
 단체의 숲 및 인근 계곡
 주 제 - 가을꽃과 곤충

9월에도 어김없이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들은 양평 단체의 숲에 모여 가을꽃과 곤충에 대해 공부했습니다. 산 이곳저곳에 알록달록 핀 초기을꽃들이 푸른 하늘처럼 맑고 정겹습니다. 선생님들이 이 곳에서 배워가신 많은 것들이 푸른숲선도원들의 마음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.

◎ 참가교사 노트

■ 야생화이야기

털별꽃아재비

→ 잎에 털이 많음

들깨풀

→ 꽃잎자루에 털이 없음 (꽃잎자루에 털이 있는 것은 쥐깨풀)

도깨비바늘

→ 미국가막사리와 잎이 거의 비슷함

주홍서나물

→ 최근 귀화식물. 양지식물 흰솜털이 달린 씨는 등 글에 모여 달림, 꽃송이가 달리면 고개를 숙이고 달림(비에 안젖으려) (붉은서나물 - 음지에 산다)

물봉선

→ 꽃을 따서 말려있는 부분을 빨아먹으면 단맛이 남. 잎이 뾰족함 (노란물봉선 - 잎이 둔함)

수까치깨

→ 꽃받침이 아래로 쳐져있음. 애기똥풀 꽃처럼 보이나 꽃잎수가 많고 잎도 다름
(까치깨 - 꽃받침이 쳐져있지 않음)

산박하

→ 원줄기에서 꽂대가 나와 꽂들이 쪽쪽 달려있는 듯함(오리방풀-잎끝이 잘려있는듯함/ 빙아풀-여러 줄기에서 꽂대가 나옴)

산여뀌

→ 가을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. 잎겨드랑이와 가지 끝에 자잘한 흰색이나 분홍색 꽃이 둥글게 모여서 핌

돼지풀

→ 일례르기를 유발한다고 함. 귀화식물.

(단풍돼지풀이 더 많은 알례르기를 유발함)

새며느리밥풀

→ 꽃 바로 밑에 있는 잎의 가시가 잎 전체에 있고 반 정도만 있음. (알며느리밥풀 - 잎 전체에 가시가 있음)

털진득찰

→ 줄기와 잎에 수평으로 퍼지는 털이 빽빽이 난다. 잎 밑에는 3개의 큰 맥이 있다. 열매를 둘러싸고 있는 총포조각의 곁에 있는 털이 끈적거리는 액체가 있음.

진득찰

→ 줄기에 마주나는 잎은 세모진 달걀형으로 가장 자리에 톱니가 있음. 3개의 잎맥에 양쪽을 짧은 누운 털이 있음.

참취

→ 줄기 끝에 산방꽃차례에 흰색꽃이 품. 잎자루에 날개가 있으며 위로 올리갈수록 작아짐. 봄에 돋는 어린순을 취나물이라하여 먹음. 금강아지풀

개미취

→ 줄기 윗부분에서 길라진 가지마다 연한 자주색 꽃이 모여서 산방꽃차례를 만듬. 털이 달린 수과 열매는 잘 날림.

똑갈

→ '똑깔'이라고도 함. 전체에 짧은 털이 빽빽이 나 있음. 마주나는 잎은 깃꼴겹잎으로 갈래조각마다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음. 흰색꽃이 달림

쉽사리

→ 네모진 줄기는 곧게 자람. 줄기 윗부분의 견드랑
이마다 자질한 흰색 꽃이 촘촘히 돌려가며 층층
으로 달림 들깨풀

층층잔대

→ 줄기 윗부분에서 가지가 층층으로 돌려나고 가
지마다 보라색 꽃이 고개를 숙이고 펌.

노루발풀

→ 늘푸른 어려해살이풀. 몇 개가 모여사는 뿌리잎
은 넓은 타원형으로 잎자루가 길고 두꺼움.

넓은잎외잎쑥

→ 땅속줄기가 사방으로 뻗음. 잎은 기다란 달걀
형으로 짧은 잎자루에는 날개가 있고 잎몸은
깃꼴로 얇게 또는 가운데까지 갈라짐.



<글/장은영(한신초교사), 사진/박세흠(승덕초교사)>

보내시는 분

성명 _____
주소 _____

전화번호 _____

_____ - _____



받는 곳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207
국립산림과학원 내 한그루녹색회

1 3 0 - 7 1 2